

# 우리도 금메달리스트가 될 수 있다



글 · 강성모 은퇴설계연구소장

지난 한 달 동안 온 국민은 올림픽으로 밤잠을 설쳤다. 하지만 올림픽을 게임 그 자체로 즐겼던 사람은 얼마나 될까? 76년 몬트리올에서 양정모 선수가 그야말로 '꿈에도 그리던' 금메달을 처음 딴 지도 근 40년이 지났건만, 우리는 아직도 메달의 색깔에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게다가 금메달을 따기라도 하면 언제부턴가 그 선수의 성공을 금전적으로 환산하면서 '대박' 났다고 부러워한다. 과연 그 정도로 금메달리스트는 팔자를 고쳤을까?

말이 나왔으니 금메달을 돈으로 따져 보자. 국가대표가 되어 올림픽 금메달을 따면 그 즉시 매달 100만 원의 연금이 지급된다. 소위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이다. 명칭도 이상스러운 이 체육인연금은 각종 국제대회의 수상 성적을 환산하여 누적 점수가 20점이 되면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 110점을 넘으면 100만 원까지 올라간다. 올림픽 금메달은 점수가 90점이지만 올림픽이라는 대회 위상을 감안, 예외적으로 월 100만 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100만 원이 상한선이다. 그 이상은 점수를 더 따도 연금액이 오르지 않는다. 다만 추가점수 10점 당 500만 원의 일시금을 받게 된다. 이상화 선수는 금메달 2연패를 했으나 이미 밴쿠버 금메달로 연금을 받고 있다면 이번 금메달로는 일시금 6천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흔히 사람들은 연금 월 100만 원보다는 협회 포상금, 후원사 인센티브 등 억 단위의 보상에 더 큰 관심을 갖는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다. 지금 20대 팔팔한 선수들이 기대수명 90세까지 매달 100만 원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라. 60년이 넘는 세월에 보장된 월수 100만 원이다. 일반적 예상과 달리 운동선수의 수명은 평균보다 짧은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딱 60년으로만 계산해 보자. 물가상승률 2%를 가정하면 60년 동안 받는 연금의 총계는 지금 목돈 기준으로 4억2천만 원이나 된다. 자 이제 부러운가?

불행히도 운동 선수의 은퇴 연령은 30세 전후다. 이후의 소득은 불확실성 그 자체다. 그러나 보통의 사람들은 55세 내외까지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노후우가 있다. 지금 30세의 직장인이 55세까지 매월 자신의 소득으로 생활을 하면서 60만 원을 저축한다면, 이후 90세까지 금메달리스트와 똑같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간단하다. 25년 동안 60만 원을 저축하면 당신도 금메달을 딴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우리 모두 금메달리스트가 될 수 있다.

혹자는 이 셈법에 시비를 걸 수도 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면 30세에 은퇴해도 연금 외에 다른 별이 충분히 보장된 거 아니냐고. 그건 신경 쓰지 말자. 아무리 그래도 그들은 세계 최고가 아닌가. 그 정도의 보상은 당연하다. 다만 우리는 세계 최고가 아닌 평범한 시민인데도 금메달급의 노후를 누릴 길이 있다는 것에 만족하면 된다. **友**